

成 巫 過 程

— 濟州島 巫俗의 比較研究 Ⅱ —

玄 容 駿

차 례

- I 濟州島 및 韓國 本土巫의 成巫
- II 周邊 民族巫의 成巫
- III 綜 合

I 濟州島 및 韓國 本土巫의 成巫

샤만은 神靈과 直接 接觸하는 人間이니까 普通 사람과는 다른 特殊한 力能의 所有者라야 하고, 그런 力能을 獲得하고 保持하는 데는 어떤 特殊한 資質, 血緣, 訓練, 修行等 條件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條件이 社會的으로 認定되어야만 그 샤만은 그 社會에서 特殊한 力能을 認定받게 마련이다.

韓國의 巫覡도 地域的 差는 있지만, 巫覡이 되는 一定한 過程과 條件의 類型이 있음은 勿論이다.

그러면 먼저 濟州島의 成巫過程부터 整理해 보기로 하자.

筆者는 이미 濟州島의 심방을 成巫의 過程으로 보아

- ① 世襲으로 되는 世襲巫
- ② 疾病으로 因하여 入巫하는 疾病巫
- ③ 巫覡과 婚姻함으로써 저절로 되는 婚姻巫
- ④ 生活手段으로 入巫하는 經濟巫

네 가지로 나누어 說明한 바 있다. 그래서 世襲巫와 疾病巫는 神意의 召命, 選擇에 依하여 어쩔 수 없이 入巫하는 것이고, 婚姻巫와 經濟巫는 自身이 그 길을 擇하여 入巫한다는 本性을 追究하여 世襲巫와 疾病巫를 <神意巫>, 婚姻巫와 經濟巫를 <自意巫>라고 論한 바 있다.¹⁾

本論에서는 잠깐 되풀이가 되는 部分이 있어도, 他民族巫와의 比較를 위해서 世襲巫, 疾病巫의 本性이 神意의 選擇, 召命에 依하여 入巫한 者라는 것을 좀 詳細히 論證할 必要가 있다.

世襲巫란 말할 것도 없이 血緣系統을 따라 繼承한 巫를 말한다. 父母가 심방이면 그 아들이나 딸이 이를 繼承하여 심방이 된다. 現時는 아들이나 딸 어느 쪽이나 심방이 되고 있으니, 그 正統 世襲을 가리키는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나, 正統 世襲을 한 者를 따진다면 그것은 父母가 쓰던 巫具<맹두>를 相續 받은 者라 할 수 있다. <맹두>는 심방의 必須的인 巫具이며 심방이 심방일 수 있는 徵表다. 이것을 相續 받은 것은 바로 父母의 巫業을 相續 받은 것이 된다. 오늘날은 子女中 아무나 먼저 巫業을 하는 者가 이를 물려받고 있지만, 심방들은 長男에서 長男으로 물려주는 것이 原則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런 觀念의 存在는 長男繼承이 正統임을 意味해 준다.

만일 子女中 巫業을 希望하는 者가 또 있을 경우에는 部落內의 단골<信仰民>들을 찾아 다니면서 祝詞를 얻어다가 世襲해 온 <맹두>를 본따서 만든다. 祝詞를 얻어오는 것을 <쇠동녕>이라 하고, <맹두>를 만들 때에는 特別한 儀禮를 지내는데, 이를 <맹두코스>라 한다.

巫具<맹두>의 相續이 巫業 世襲의 徵表가 되는 것은 그럴만한 理由가 있다. <맹두>는 이미 巫覡의 職能章에서 말한 바와 같이 巫祖, 또는 守護靈과 마찬가지로 <조상>이라 부르고, 守護靈의 靈力이 內在해 있어 巫로서의 能力을 주고, 또 巫業을 守護해 준다고 믿는다. 그래서 심방들은 이 巫具를 <당주>(집의 一隅에 巫祖를 모시는 곳)에 모시고 있으니, 結局 <맹두>로 象徵되는 守護靈은 巫業을 守護해 주고, 심방은 그 守護靈을 恒

常 모셔 대접하는 셈이 되어 共生關係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巫業을 世襲한다는 것은 그 巫具의 相續을 通하여 巫儀 執行 能力을 繼承하는 것이 되는 同時에, 守護靈을 引繼 받아 致祭를 繼續하는 셈이 된다.

만일, 자식이 父母의 巫業을 繼承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자식은 病을 앓게 된다고 한다. 世襲巫들에게 어째서 심방이 되었는가고 물으면 항상 몸이 아파서 점쟁이에게 물으니 「祖上을 학대한 때문」이라 해서 父母의 맹두를 물러받아 심방이 되니 健康해졌다고 하는 이를 많이 본다. 「祖上을 학대한 때문」이란 말은 先祖로부터 이어 내려온 守護靈을 위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病은 巫業을 繼承하지 않고 守護靈을 繼承하여 모시지 않기 때문에 守護靈이 巫業을 繼承하여 自己를 繼續 모시도록 하는 徵表로서 내린 病이다. 巫覡들은 事實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나, 이 巫系家의 病은 巫가 되도록 選擇하고 指定하여 召命하는 病인 것이다. 따라서 世襲巫는 단지 制度的인 세습에 그치는 게 아니라, 神의 選擇, 召命이라는 觀念이 깔려 있는 것이 된다.

다음, 疾病巫는 오랫동안 病으로 앓아 百藥이 無効하고, 問占을 했더니 심방이 되어야 할 八字라 해서, 入巫하니 病이 나왔다는 類의 심방들이다. 그 病은 原因 모르게 시름시름 앓아 몸이 점점 말라가는 것도 있고 온몸이 여기 저기 수서서 견딜 수 없이 고통한다는 이도 있고, 精神異常과 같은 症勢를 일으키는 이도 있다.

現在는 世襲巫가 疾病巫보다 많지만 現在의 世襲巫들의 先祖가 처음 入巫할 때에는 疾病의 原因으로 入巫한 경우가 殆半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 예를 몇 개 보기로 하자.

- ① 濟州島의 巫祖神話에 나오는 最初의 巫, <유씨부인>은 政丞의 딸이었는데, 6살 때 지나가던 중으로부터 葉錢 3잎을 받고, 7歲부터 앓기 시작하여 77歲까지 重病을 앓다가, 77歲에 처음으로 巫業을 시작하여 大巫가 되고 病이 나왔다.

이 예에서 중이 주었다는 葉錢은 오늘날의 巫具<땡두>의 一部分인 <천문>의 前身이라 보이며, 이 葉錢으로 象徵된 守護靈이 召命의 徵表로서 疾病을 내린 것임을 말해 준다.

② 濟州市 三陽里 男巫 梁 今○氏의 祖母는 本來 良家의 딸인데, 18歲 때에 突然 精神異常者처럼 앓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굿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아, 涯月面 於音里에서 굿소리를 따라 舊左面 金寧里까지 왔다. 마침 朴氏 심방이 굿을 하고 있어, 할머니는 무턱대고 들어가 춤을 덩실덩실 추어가니, 심방이 붙잡고 사정을 물었다. 自初至終을 돌고 너는 심방이 될 八字이니 심방이 되라고 해서, 그로부터 修業을 해서 심방이 되었다.²⁾

③ 濟州市 禾北里의 男巫 洪 明○氏의 祖父는 어느날 橋來里 앞방디에서 밭을 갈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갑자기 춤을 추고 싶은 생각이 났다. 그래도 참고 조금 밭을 가노라니까 신칼(神刀)이 하나 보습 끝에 일구어 나왔다. 그 순간부터 橋來里 뒷밭 쪽에서 굿하는 소리가 마구 들려오고 춤추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달려가 보았더니 굿하는 때는 없고, 굴 속에 <상잔>과 <천문>이 있었다. 이 巫具를 주은 後 精神異常者처럼 되어 심방이 되었다.³⁾

④ 濟州市 健入里 男巫 洪 相○氏의 六代祖母는 어느 해 時患(虎列刺病)에 걸려 죽으니, 가까운 밭에 臨時 假葬을 했다. 3個月(1週日이라고도 함) 後, 머슴이 밭을 갈러 가보니, 假墓 안에서 끽끽거리는 소리가 나므로 급히 집에 전갈을 했다. 아들들이 와 헤치고 보니 할머니가 살아 있었다. 할머니가 「나를 업고 급히 서쪽으로 가라」고 해서, 업고 가는데, <바금지오름> 중턱엘 가니 큰 바윗돌을 파라고 했다. 파고 보니 그 밑에 <땡두>가 있어, 그것을 주워 들고 다시 下貴里<군항이>까지 오자, 한길을 파라고 했다. 파보니 <울쇠(巫樂器)>가 있어, 그것을 줌과 와 심방이 되었는데, 모든 일을 꼭꼭 알아 맞추는 大巫가 되었다.⁴⁾

- ⑤ 翰林邑 大林里 出身 男巫 任 春○氏は 15歲때부터 몸이 아파 百藥을 써 봐도 効力이 없었다. 그래서 安德面 山房窟寺에 들어가 7年間을 生活하다가 問占을 하니 심방이 될 八字라 해서 그 後 入巫했다.⁵⁾
- ⑥ 安德面 沙溪里 出身 女巫 金 正○氏は 19歲때에 病이 들어 거의 죽게 됐었는데, 法華寺에 들어가 修養하고 病이 나았다. 그 後 다시 病이 나서 굿을 했는데 심방이 될 八字라고 했다. 그 後 26歲, 33歲에 큰 굿을 하고 40歲에 꿈을 꾸었는데, 白髮老將이 나타나 山房窟寺에서 祭를 지내라 하므로 山房山 頂上에서 天神祭를 지내고 심방이 되어 이 <조상>을 위하기 시작했다. 前엔 神이 팔팔 뿔 때니 支署에까지 가서 占事를 했는데, 이제는 神이 누그러졌다. 모시는 神은 山神이다.⁶⁾

以上 數例에서 보듯이, 여러가지 症候의 疾病을 앓고, 굿소리가 들려오는 錯覺이 일어나 찾아 헤매게 되고, 巫具<맹두>를 줌고 그래서 심방이 될 八字라는 占事를 받고 해서 入巫하고 있는 것이다. 八字라는 말은 巫가 되라는 神의 選擇이요, 召命이며, 疾病은 巫가 되라는 徵表이고 주운 <맹두>는 바로 守護靈의 出現이다. 따라서 疾病巫들은 神意의 選擇, 召命에 依해서 入巫한 심방들인 것이다.

이로써 보면 世襲巫나 疾病巫나 神의 選擇과 召命에 依해서 된다는 同一性格이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濟州島의 巫現은 世襲入巫, 疾病入巫, 婚姻으로 인한 入巫, 生活手段으로서의 入巫등 여러 케이스가 있되 神意의 選擇·召命이라는 觀念이 入巫의 '中心思想'이 되고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하여 入巫한 者가 獨立하는 데는 儀禮 執行의 技能을 修業함이 必要하다. 世襲巫의 경우는 어릴 적에 父母를 따라다니며 저절로 習得이 되었고, 餘他의 巫는 小巫로써 따라다니며 그 技能을 教習 받는다. 이렇게 하여 심방이 되는데, 過去에는 <신굿>이라는 入巫式 같은 儀禮를 한 후 入巫하였다 하는데, 오늘날은 目擊할 수가 없다.

濟州의 巫現은 入巫過程에서는 神의 召命이라는 觀念이 重視되지만, 實

際의 儀禮에서는 忘我現象이 露出되지 않으므로 그 成巫過程의 訓練에도 巫儀의 技能 訓練만 必要하지, 忘我狀態에의 沒入 訓練 같은 것은 必要가 없다.

그러면 韓國 本土의 무당의 成巫過程은 어떠한가?

大體的으로 말하면 濟州島의 심방과 가장 類似한 關係에 있다는 南部地方의 당골은 姑婦繼承型의 世襲을 하여 巫病過程을 거치지도 않고, 守護靈을 모시는 일도 없이, 시어머니를 도우는 사이에 巫의 技能을 習得하여 完熟한 巫로 獨立한다고 한다.⁷⁾ 이에 대해 濟州의 심방과 그 性格이 다르다는 北部地方의 무당은 男女 어느 쪽이나 되지만 家系에 關係없이 巫病疾狀부터 일어난다. 그 症狀의 特徵은⁸⁾

- ① 우연히 시름시름 앓는다.
- ② 밥을 못 먹는다.
- ③ 몸이 때때 마른다.
- ④ 精神狀態는 異狀이 되어 虛像을 보거나 꿈이 많아지고 꿈속에서 神을 본다.
- ⑤ 醫藥治療가 不可能하다.
- ⑥ 降神한 神을 받아 巫가 되어야 이 병이 낫는다.
- ⑦ 病이 나아 巫를 그만 두면 다시 이 症狀이 再發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巫가 된다.

이러한 病的 症狀이 있으면 社會的으로 巫가 되어야 할 特殊人이라는 認定을 받게 되고, 이를 신들렸다 하게 된다.

秋葉의 報告에 따르면⁹⁾ 신들린 사람이 집을 뛰쳐나와 헤메어 다니다가 어떤 死巫가 生時 쓰던 1個의 明圖 即 神鍾과 神鈴을 줌고 巫가 되어, 그것을 守護神으로 神堂에 모시는 事例,

7歲 때에 突然 山에 오르고 싶은 衝動이 일어나 올라갔다가, 우연히도 거기에 묻어 있는 斫刀와 神缸 그리고 神鈴을 發見하고, 이를 가지고 와서 巫가 된 事例

19歲의 한 少女가 行商을 다니다가, 山中인데 空中에서 방울 소리와 이

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그로부터 病이 들어 問占 結果, 귀신이 붙었다 하여 降神祭를 지내고 巫가 된 事例

등이 있다.

이 巫病을 앓은 者가 우연히 巫具를 줌고 入巫하는 것은 위에서 본 濟州島의 入巫過程과 極似한 것으로 守護靈이 巫가 될 者를 選擇, 召命하는 徵表로 病을 준 것이요, 이끝어다가 그 巫具를 줌게 한 것이라는 觀念이 깔려 있다. 이런 점이 濟州島와 一致한다.

이렇게 神의 選擇과 召命을 받은 者는 既成 무당 밑에 신딸로 들어가 巫樂, 巫歌, 巫舞 등 巫儀 執行 機能을 習得하고 巫具 巫服 등을 傳承받아 完熟한 巫로 獨立한다. 巫의 敎習에는 技能敎育이 大部分인 것 같고, 憑神, 忘我狀態에 沒入하는 特殊한 敎育이 있다는 報告는 아직 없다.

신들린 巫가 巫로서 獨立할 때에는 特殊한 入巫儀禮를 한다는 報告¹⁰⁾가 있으나 現今엔 發見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신들린 무당은 守護靈인 <몸주대감>을 모신다. 몸주대감은 그 무당이 巫病을 앓을 때에 憑依하여 巫的 靈能을 갖게 해 주고 늘 巫人에게 붙어다니며 指示도 해주고 무당의 靈能을 發揮케 한다고 믿어지는 신령이다.¹¹⁾

이로써 보면 入巫한 무당이 巫儀 執行 技能의 習得을 거치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特殊한 入巫儀禮를 하고, 巫具 巫服등을 傳承 받아 巫로써 獨立하며, 守護神을 모셔 그에게서 巫的 靈能을 얻는다는 점은 濟州島의 지방과 大同小異하다. 다시 말하면 巫의 資格에 있어서 神의 選擇, 召命, 巫病現象, 成巫過程에 있어서의 巫儀 技能訓練, 入巫祭, 守護神의 崇拜, 補助 등 大部分이 類似하되, 다만, 差異는 濟州巫는 父系 世襲型이 많아 主로 家系 繼承을 하는데, 北部地方의 무당은 신어머니, 신딸관계의 師弟 繼承制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Ⅱ 周邊 民族巫의 成巫

① 시베리아 및 中央亞細亞의 샤만

샤만의 入巫에는 두 가지 型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世襲에 依한 것이고, 他는 神이 自己에게 奉仕시키기 위한 選擇 召命에 依한 것이다.¹²⁾

召命型의 샤만은 發育期에 벌써 特殊한 資質을 나타내니, 그 徵兆는 靈的 現象, 頻繁한 眩暈發作, 失神, 將來를 豫言하는 能力이다. 이런 徵狀이 보이면 이 아이는 將次 샤만이 될 者라고 社會的으로 認定된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心身의 苦患時代를 거치는 것이니, 全然 食慾을 잃고, 人間과 隔絶하여 極度의 神經쇠약에 걸리고 집을 떠나 山河를 돌아다니며, 어떤 때는 바깥의 눈 속에서 자고, 거기서 고요하게 신령과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하곤 한다.¹³⁾ 말하자면 巫病現象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者는 곧 老샤만에게 紹介되어 神에 關한 知識, 治療法, 儀禮의 技能등을 敎習 받고 一定한 入巫儀禮를 거쳐 守護神을 모시고 샤만으로서 獨立한다.

世襲型의 샤만은 父方 또는 母方의 血統을 따라 세습되는데 萬一 자식이 없을 때에는 親族, 親舊 또는 제자를 골라서 青年期에 特別히 神經刺激을 刺戟하고 空想을 불러 일으키는 訓練을 한다.¹⁴⁾

그러나, 世襲型의 샤만에도 神의 選擇 召命의 觀念이 複合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 자식 중에 종종 思考에 잠기고, 孤獨을 사랑하고 꿈이 많고 때때로 發作을 일으켜 無感覺狀態에 빠져 쓰러지는 者를 골라, 이를 神이 선택한 者라 認定하여 繼承시킨다. 선택된 者는 神靈, 儀禮등에 대한 知識과 技能을 배울 뿐 아니라, 신령을 불러 실신상태에 빠지는 苦된 訓練을 거친다. 말하자면 技能敎育 뿐 아니라 ecstasy 沒入敎育을 받아 獨立된 샤만이 되는 것이다.

結局 샤만은 特殊資質이 있는 者가 巫病現象을 일으키고, 神의 選擇, 召命者임을 認定 받아 샤만으로서의 技能敎育과 ecstasy 敎育을 받고, 入

巫式을 거친 後, 巫具등을 물려 받아 獨立하는 셈이 된다. 이것은 全體的인 輪廓만으로 보면 韓國巫와 大同小異한 것이 된다. 다만 뚜렷한 差異로서 韓國巫에는 技能教育은 있어도 *ecstasy* 教育이 없다는 점을 指摘할 수 있다.

[2] 滿洲의 巫

滿洲의 諸種의 巫를 다 알 수는 없으나, 跳大仙의 入巫 事例 二·三을 보면 이리하다.

① 奉天의 大仙 (男) 56歲

30歲 때에 一年쯤 傷風과 같은 病을 앓았는데 全身이 아파 食慾이 없고, 물만 먹다가 한 大仙에게 依賴하여 빌었더니 突然 神이 내린 일이 있다. 그 後 37歲 때에 再次 神이 내려서 남의 病을 고친 일이 있다.¹⁵⁾

② 大連 沙河口의 大仙 (男) 43歲

20歲 때에 病에 걸려 2個月間 飲食을 못먹고 물만 마시다가 突然 憑神狀態가 되어 이웃의 老女の 病을 고치고 以後 22年間 巫事に 從事.¹⁶⁾

③ 延吉의 大仙 (女) 57歲

5~6年前 病으로 신음할 때 신이 나타나 巫가 되라고 命命하고, 召命을 背反하면 病이 낫지 않으니 하므로, 이를 믿고 꿈에서 신으로부터 治病의 術을 배워서 大仙이 되었다.¹⁷⁾

④ 東京城의 薩瑪 (男) 21歲

어릴 적 매우 몸이 弱해 薩瑪가 되면 좋아진다고 周圍 사람으로부터 勸告를 받았다. 薩瑪가 되는 것은 싫었지만 決心을 하고 薩瑪의 先生에게 가서 목치는 練習부터 시작했는데, 얼마없이 降神狀態에 빠지게 되고 몸도 매우 좋아졌다.¹⁸⁾

以上 數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病弱者가 巫病現象을 일으키고, 또 꿈에 神으로부터 入巫하라는 命命을 받고 憑神狀態가 되어, 巫가 될 者임을 社

會的으로 認定 받은 후 師巫에게서 技能 敎習을 받아 入巫함이 一般이다. ecstasy의 訓練, 巫具 巫服의 傳授, 守護神의 繼承등 具體的인 것은 모르나 大體的인 面에서 시베리아의 召命型 入巫過程이나 韓國의 降神巫의 入巫過程과 大同한 것으로 보인다. 秋葉 隆도 巫病期와 그 症狀이 韓國과 滿洲가 一致함을 指摘하고 있다.¹⁹⁾

③ 日本의 巫

日本의 巫女는 神社巫와 民間巫가 그 成巫過程에 있어 다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神社巫는 여러가지 傳承을 綜合해 볼 때, 本來 祭神과 直接 關係 있는 氏族의 族長이 司祭者로서 機能하고 그 族長과 깊은 關係에 있는 一族의 女性이 選任되어 巫女로서 任命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特히 그 選任은 神籤에 依하였다는 傳承이 있고 處女로서 奉職하다가 結婚을 하게 되면 그 職을 물러났던 것이라 한다.²⁰⁾

神社巫는 이처럼 神의 選擇 信仰에 依한 家系 繼承을 十分 생각케 하는 것이거나, 오늘날의 民間巫는 그 入巫의 動機부터가 이와는 다르다. 勿論 民間巫들도 地域的 差가 있기는 하지만, 代表的 存在라고 할 수 있는 東北地方의 <이다꼬>의 成巫過程을 摘記해 보면 이렇하다.

- ① 태어날 때부터 盲目이거나 幼時 病으로 因해 失明하게 되면 周圍에서 <이다꼬>가 되라고 勸告를 받게 된다. 그래서 12歲 乃至 16歲 사이에 師匠<이다꼬>에게 弟子로 들어간다.
- ② 弟子로 들어가면 師匠의 집안 清掃 炊事등 신부름을 하는 一方, 巫業에 必要한 經文, 眞言, 呪文, 祭文, 神佛의 名稱등의 敎授를 받는다.
- ③ 約 2年 乃至 4年의 學習을 하고 獨立할 만한 技能이 익혀지면 入巫의 儀禮(傳授ゆるし, 神つけ)가 行해진다. 이 儀禮는 「前行, 憑神의 巫儀, 祝宴」의 過程으로 進行된다.
- ④ 前行이란 式의 數週日前 一定期間 肉食을 禁하고, 冷水 沐浴을 하는

등 타부와 齋戒를 하는 것이다.

⑤ 式은 弟子의 兩親, 親戚 등이 모인 가운데, 弟子가 新婦의 裝束을 하여 密室에서 行해지는데, 師匠이 祈禱를 시작하여 여러 神들을 불러 들여가면 앉은 弟子는 意識이 몽롱해져서 쓸어진다. 그러면 神이 내렸다 하여 師匠이 무슨 神이 내렸느냐고 묻기도 하고, 제자가 내린 神名을 대기도 한다. 이게 바로 憑神의 體驗이다.

⑥ 이렇게 하여 憑神에 成功하면 一同이 祝宴을 베풀어 結婚式과 같이 祝賀한다.

⑦ 이런 過程을 거쳐서 弟子는 師匠에게 念珠 등 巫具를 傳受 받고 巫로서 獨立한다.²¹⁾

이 成巫過程에서 注目되는 것은 盲目이라는 先天的 또는 後天的인 身體條件이 巫의 資格으로 社會에서 認定되는 점과 師弟關係로 修業過程을 거치는데 主로 신령에 대한 知識과 技能을 教育 받고, 入巫式에서는 憑神·忘我的 訓練과 그 實際 體驗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巫病의 過程을 거쳐 神의 선택, 召命의 信仰에 依한 入巫와는 그 性格이 다르다 하겠다.

한편 盲目이 아닌 巫 <고미소>의 成巫過程을 보면 이러하다.

① <고미소>가 入巫하는 轉機는 病弱, 貧困 등 日常生活의 苦惱에서 벗어나려고 信仰을 시작하여 熱心히 修業하는 過程에서 神이 내리거나 靈感을 얻었다는 現象이 일어나는 경우와 平凡한 日常生活 中에 突然히 神이 내려 靈感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다. 이 두 轉機中 後者보다 前者가 一般的이다.

② 巫로서 獨立하기 前에 修行을 거치는데 그것은 不斷한 冷水沐浴, 斷食, 神社·寺院에서의 修行등이다.²²⁾

이 <고미소>도 一般的인 것은 巫病이나 神의 選擇, 召命의 觀念이 없이 修行으로써 憑神體驗을 얻어 入巫하고 있다. 그러나 그 修行이 斷食, 沐浴, 精進 등 信仰의 修行으로 一貫된다. 이것은 一種의 憑神·忘我的 訓練이라 볼만하다.

以上으로 보면 日本의 民間巫는 神의 選擇, 召命의 信仰이 없이 修行即

憑神. 忘我的 訓練에 依하여 憑神의 靈能을 獲得하고, 技能 訓練에서 巫儀 技能을 習得하여 入巫式을 거친 다음 入巫하는 것이라 概括될 수 있다. 結局 憑神, 忘我的 靈能을 갖춘다는 점은 韓國巫나 滿洲巫나 시베리아의 샤만과 같되, 그 靈能을 神의 選擇 召命에 依한 巫病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人爲的 修行-訓練에 依하여 獲得한다는 점이 다르다 하겠다.

④ 沖繩의 巫

沖繩에는 主로 公的 祭儀에 關與하는 <노로> 와 私的 巫術을 담당하는 <유다> 가 있음을 이미 알거니와, 먼저 <노로> 부터 그 成巫過程을 보기로 하자.

本來 노로는 部落을 開拓한 宗家(도네야)에서 나왔고, 옛날은 部落長(구지누슈)의 姉妹였다.²³⁾ 그 家系를 <노로비끼> 라 하여 大概는 母에서 딸에게로 家系 繼承을 한다. 이 神役을 繼承할 姉妹가 혼자일 경우에는 問題가 없지만, 萬一「姉妹가 여럿이라든지 많은 女姪中에서 選擇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는 <유다> 에게 占을 쳐서 選擇하는 變態的 方法도 있지만 大概는 不意의 疾病에 걸려서 다음 代의 노로가 되라고 神으로부터 選擇되었다는 自覺을 갖게 된다.」²⁴⁾ 이렇게 神의 選擇, 召命이 내려졌다고 믿어지는 者에게 노로는 繼承되지만, 또 노로의 遺言에 따라 選擇, 繼承되기도 한다. 萬一 이렇게 하여 選擇된 者가 노로職을 相續하지 않을 경우에는 家族의 死亡, 疾病等 災難이 繼續 일어난다는 信仰이 있다. 이는 노로職 繼承을 拒否함에 怒하여 이미 死亡한 前 노로가 내리는 災難이라 한다.²⁵⁾

結局 노로는 部落長의 딸에서 딸로 家系를 따라 세습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神의 選擇, 召命이 내린 者에게 세습한다는 信仰이 깔려 있는 것이다. 現時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지만, 노로는 處女이어야 하며 世襲 終身의 神職이었다는 것도 記憶해 둘 일이다.

이렇게 選拔된 女人은 一種의 入巫儀式을 거쳐서 完全한 노로가 된다. 그 儀式의 모습은 대략 다음과 같다.

儀式은 밤에 노로들만이 모인, 男子 禁域의 祭場에서 行해진다. 入巫하는 노로가 노로의 服裝을 입어 <고바> 라는 나무로 만든 부채로 얼굴을 가리어 앉고, 그 周圍를 既成 노로들이 圓形으로 둘러 앉는다. 各者의 앞에는 祭物이 놓인 床이 각각 놓여져 있다. 儀式은 먼저 술을 따라 마시고 다음 북소리에 맞추어 神歌를 부르고, 歌樂이 점점 喧噪狀態에 들어가면 既成 노로가 일어서서 輪舞를 시작한다. 춤이 점점 템포가 빨라져 끝나면 이제까지 앉아서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앉았던 新任 노로가 부채를 얼굴에서 내려놓아 처음으로 얼굴을 나타낸다. 그래서 <운도네>神에게 學習하여 밀고 노로들이 술잔을 交換한다.

이런 儀式을 觀察한 小口偉一氏는 ① 神座로서 차려 앉은 일 ② 喧噪狀態에 들어가는 일 ③ 輪舞를 하는 일 ④ 新任 노로(아라神)가 神木인 <고바> 나무의 부채로 얼굴을 가렸다가 最後에 얼굴을 나타내는 일에 注意하고 사람이 神이 되는 祭儀라고 했다.²⁶⁾

<노로>의 成巫過程에 비해 <유다>의 그것은 巫病을 同伴하는 점이 顯著히 다른 것이다.

한 二例를 보자.

① 奄美本島의 어느 部落. 58歲의 女. 4個年間이나 病으로 누워 목과 발을 움직일 수 없었다. 名瀨의 病院에도 가서 診察해 보았지만 院長은 可望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陰 6月1日 午後 5時頃 突然 神이 내려서 목이 돌려지고 격련이 일어났다. 격련은 約 10分間 繼續되었는데 그 後 熱이 나고 疼痛이 없어졌다. 그 神은 <덴사시>의 神(天神)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6月 6日 名瀨의 <유다> 3名과 그 部落의 <노로·옥강>과 더불어 祈禱하고 노로의 能力을 이어받았다고 한다.²⁷⁾

② 喜界島의 어느 部落. 81歲의 女.

27年前 머리가 이상해져서 유다神(유다도 人間이지만 神이라고 부른다—筆者 註)을 찾아 물어보았더니, 노로神을 崇仰하지 않으면 生命이 可望 없다고 했다. 그래서 노로神 7人이 나타나서 이제까지 代

가 끊어졌던 노로職을 繼承하라고 命했다. 몸이 좋지 못하고 二週間
이나 食事를 못하고 있었는데, 神을 위한 決心을 하니 셋은 뜻이 나
았다. 그리고는 다른 部落의 유다로부터 法術을 배웠다.²⁸⁾

이들 例에서도 짐작이 되겠지만, 유다의 成巫는 ① 巫病에 걸린 者가
노로에 依해서 유다임을 確認 받는 경우 ② <하미우루시(神下し)>라는 巫
儀 때에 呪음이 오고 神이 내린 女性이 先輩 유다의 指命에 의해서 入
巫하는 경우 ③ 一時 精神異常이 되었다가 回復된 者가 入巫하게 되는
경우등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다.²⁹⁾ 綜合하여 보면 유다는 巫病을 앓은 者
가 노로 또는 先輩 유다에게서 유다가 될 者임을 認定받거나 또는 指命을
받고 師巫에게 法術을 배워 入巫하는 것이 一般型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노로>와 <유다>는 成巫過程에 鮮명한 差가 있는 듯 하지
만 實은 地域에 따라서는 그 區分이 明確하지가 않다. 어떤 데서는 노로
와 유다가 混同되어 유다를 노로라 생각하는 部落이 있고 (유다가 自己自
身を 노로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³⁰⁾ 一般的으로 노로의 系統 家門에서
유다가 잘 나온다면, 유다는 같은 親族으로부터 나온다면가 하여 同一
한 親戚集團 內에서 再生産되고 있다.³¹⁾ 그 뿐 아니라, 宮古島에서는 <쓰
가사(곧 노로)>나 <유다>나 신들린 사람임 <강가가랴>로부터 나오고 유다
가 된 다음에 <쓰가사>로 되기도 한다.³²⁾

이런 事實은 노로나 유다나 同一 根源에서 나온 것으로서 後代에 職能
이 分化된 것임을 推量케 하는 것인 同時에 本來의 成巫 過程은 同一型이
있음을 推測케 하는 것이다.

어떻든 兩者를 綜合하여 생각할 때, 沖繩의 巫는 世襲型과 召命型 두
가지 入巫型이 되 神의 選擇, 召命 信仰이 基盤이 된 巫病을 앓고 師巫
에게 巫術을 習得한 후, 入巫儀式을 거쳐 成巫하는 것이라 概括할 수 있
다.

Ⅱ 綜 合

以上 보아온 바와 같이 諸民族의 成巫過程은 同似點을 지니고 있음과 同時에 또한 差異點도 많이 지니고 있다.

시베리아의 샤만은 神의 選擇, 召命 信仰에 기초한 巫病이 契機가 되어 入巫하는 召命型과 그렇지 않은 世襲型이 있는가 하면 世襲型에도 巫病現象이 동반하는 複合型이 있다. 滿洲의 大仙은 巫病現象이 契機가 되어 入巫하고 있어 시베리아의 召命型 入巫와 近似하고, 韓國의 巫는 巫病現象을 거치는 召命型(所謂 降神巫)과 世襲型이 있으나 그 세습에 神의 選擇, 召命 信仰의 殘影(世襲을 거부할 때에는 질병 등 災難을 내린다는 觀念)이 있는 것으로 보아 召命, 世襲 두 가지의 複合型과 같은 性格을 띠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시베리아, 滿洲, 韓國은 同似하다. 한편 日本 및 沖繩의 巫를 보면 日本의 神社巫는 家系 세습을 했고, 그 選擇이 神籤에 依했다는 점에서 神의 選擇, 召命 信仰이 보여 複合型的의 色彩가 있고, 沖繩에는 世襲型的의 노로와 召命型的의 유다가 있으나, 그 세습에는 巫病現象이 同伴하고 유다에도 家系 產出現象이 있어 통틀어 말할 때 複合型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神의 選擇, 召命, 巫病이라는 점에선 시베리아에서 沖繩까지 同似하다.

그런데 日本의 民間巫만은 가끔 巫病現象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神의 選擇, 召命의 觀念이 없이 修行으로서 憑神의 靈能을 習得하고 있어 特異하다. <이다코>의 盲目이 神의 指定한 身體의 條件이라 解釋할 可望이 全然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觀念이 없이 生計維持 方便으로 成巫 修行을 하고 있고, 盲目이 아닌 <고미소>도 修行을 통해서 靈能을 獲得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역시 民間巫는 修行型이라 할 수 밖에 없다. 萬一 神社巫나 民間巫나 同一 根源의 것이라는 柳田의 說이 옳은 것이라면 民間巫도 神社巫와 本來는 同一한 成巫過程을 밟았으리라는 것을 능히 생각할 수 있다. 아마 民間巫의 修行入巫形式은 山伏, 祈禱師 등 他 職能者에게서 流入한 것인 지도 모른다.

召命入巫를 하든, 世襲入巫를 하든 神의 選擇, 召命이라는 觀念이 같려 있음은 우리와 우리의 周邊民族이 같되, 그 世襲의 類型에는 些 差異들을 보인다. 시베리아에서는 父方, 母方 두 가지의 世襲型이 보이지만 父方繼承이 더 優勢한 것 같고, 韓國에는 南部에는 姑婦繼承, 濟州島에는 父子繼承이 優勢하며, 沖繩에서는 母女繼承이 優勢하다. 이런 世襲의 類型은 그 民族의 歷史的 社會的 條件에 말미암은 것이겠지만, 沖繩의 母女世襲은 特異한 것이다.

이와 關連하여 巫의 性別이 또한 問題되는데 시베리아, 滿洲, 韓國은 男巫가 있는데 日本과 沖繩은 女巫만이 있는 점이 다르고 特히 巫는 處女이어야 한다는 觀念이 支配的인 것은 日本과 沖繩이 一致하다.

다음, 이러한 入巫類型과 必然的 關係가 있는 것에 成巫過程의 修業內容, 巫業의 傳授, 入巫式 등이 있다.

시베리아의 샤만은 그 修業이 巫儀 技能教育 뿐 아니라, ecstasy 訓練까지 받고 神과 最初로 直接 交通하는 意義를 지닌 入巫式을 거쳐 巫具, 巫服 등을 師匠에게서 傳受받아 獨立한다. 召命型 샤만에 있어서는 師弟傳授가 될 것이고, 世襲型에서는 親子傳授가 된다. 그런데 韓國에 와서는 修業이 技能教育에 그치고, 憑神 忘我的 訓練이 없다. 이는 滿洲에도 同 似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日本의 民間巫는 技能교육과 더불어 謹身, 禁食, 斷食, 冷水沐浴 등 憑神訓練을 시키고 入巫式도 憑神의 聖的 體驗을 갖게 하는 motif의 儀式을 치르며, 沖繩巫는 技能교육을 거치고 入巫式은 바로 神이 되는 motif의 儀式을 지낸다.

이러한 差異는 ecstasy와 possession의 強弱과 變遷에 關係깊은 것으로 보인다.

시베리아에는 ecstasy가 巫儀의 必須要件으로 되어 있으니, 特히 世襲巫들은 ecstasy에 自由自在로 沒入하고 覺醒하는 人爲的 訓練이 필요한 것이고, 韓國은 忘我境 沒入이 弱화 乃至 形式化 되었으니 그런 人爲的 忘我 訓練이 必要 없고, 日本의 民間巫는 巫病, 憑神現象이 없어 入巫하고 있으니, 人爲的으로 忘我境 沒入을 訓練시켜 憑神體驗을 갖게 하는 것이며, 沖繩

의 巫(특히 노로)는 憑神이 格式化, 制度化되어 神化해 버린 것이니, 神이 되는 motif의 入巫式을 거치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成巫過程의 諸 特徵 要素를 構造的으로 解釋할 때 巫業의 傳承方法이 親子傳承과 師弟傳承의 두 型이 있는 것도 그대로 풀려간다. 入巫類型이 世襲型이면 親子傳承으로, 非世襲型이면 師弟傳承으로 될 것은 當然한 일이기 때문이다. 韓國의 召命型巫(降神巫)가 日本의 民間巫와 傳承形式이 같은 것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構造的으로 把握할 때 成巫過程의 여러 特徵의 要素中 重要한 點이 되는 것은 入巫의 類型과 巫의 性別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보면 男女 모두 成巫하는 시베리아, 滿洲, 韓國은 그 類型이 같은 것이 되고, 女子(특히 處女)만이 巫가 되는 日本과 沖繩은 그 類型이 다르다 할 수 있다. 따라서 成巫過程이라는 面에서 본다면

① 시베리아 및 中央亞細亞, 滿洲, 韓國型

② 日本, 沖繩型

두 가지의 큰 類型으로 概括하고 그 類似性을 지적할 수 있다.

이들 關係는 表로 一括하여 보면 보다 分明히 理解가 될 수 있을 것이다.

地 域	入巫類型	契 機	性 別	傳 授	修 業 內 容	入 巫 式
시베리아	召命型	病弱, 神의 選擇	男	師 弟 親 子(父系) (母系) 同	技能教育 忘我訓練	有 神과의 直接交通
中央亞細亞	世襲型 複合型	世襲, 病弱, 選擇	女			
滿洲(大仙)	召命型	病弱, 神의 選擇	男	師 弟	技能教育	?
韓國	召命型	病弱, 神의 選擇	男	師 弟 姑 婦 父 子	技能教育	有 未 詳
北 部	召命型	病弱, 神의 選擇	男			
南 部 濟 州	世襲型 世襲型	世襲, 病弱, 選擇	女			
日 本	世襲型	世襲, 神의 選擇	女	?	?	?
神社巫	修行型	盲目, 生計維持		師 弟	技能 및 忘我訓練	憑神體驗
沖 繩	世襲型	世襲, 選擇, 巫病	女	母 女 師 弟	技能教育	有 最初의 神化 ?
노 로 유 미	召命型	病弱, 選擇				

註

- 1) 玄容駿「濟州島の巫覡」『濟大學報』第7號 pp. 164~169 濟州大學 1965
- 2) 濟州市 三陽里 男巫 梁 今○氏談
- 3) 朝天面 北村里 男巫 朴 仁○氏談
- 4) 濟州市 三陽里 男巫 梁 今○氏談
- 5) 翰林邑 大林里(現在 濟州市 二徒里 居住) 男巫 任 春○氏談
- 6) 安德面 沙溪里(1959年 當時 濟州市 龍潭里 居住) 女巫 金 靖○談
- 7) 任哲宰「韓國巫俗研究序説」『亞細亞 女性研究』10집 pp. 192~193 淑明女子
大學校 1971
崔吉城「巫系傳承考 - 全南 汀谷을 中心으로 -」『韓國民俗學』創刊號 pp. 106
-110
- 8) 金泰坤「韓國巫系の 分化過程」『韓國民俗學』創刊號 p. 59 서울 1969
- 9) 秋葉 隆『朝鮮巫俗の 現地研究』pp. 50~55 養徳社 1950
- 10) 秋葉 隆 1950 ibid. pp. 56~61
- 11) 任哲宰 1971 ibid. p. 192
- 12) W・M. Mikhailowski 著 高橋勝之譯「シベリヤ・蒙古及び歐露の異民族間に
於けるシャマン教」『東亞論叢』3輯 p. 337 東京 1941
- 13) G・Nioradze 李弘植譯『西伯利亞諸民族の 原始宗教』p. 97 서울新聞社 1949
- 14) W. M. Mikhailowski ibid. p. 338
- 15) 赤松智威 秋葉 隆『滿蒙の民族と宗教』pp. 329~330 大阪屋號書店 1941
- 16) 赤松, 秋葉 1941 ibid. p. 331
- 17) 赤松, 秋葉 1941 ibid. p. 339
- 16) 秋葉 隆 1950 ibid. p. 62
- 19) 秋葉 隆 1950 ibid. p. 61
- 20) 柳田國男『民俗學辭典』p. 550 東京堂
- 21) 櫻井徳太郎「津輕イタコと巫俗 - とくにその分布と成巫過程について -」『津輕
の民俗』pp. 310~328 吉川弘文館 1970
- 22) 江田絹子「津輕のゴミソ」『津輕の民俗』pp. 336~337 吉川弘文館 1970
- 23) 松本雅明『沖繩における 神女と その起源』『沖繩の社會と習俗』p. 6 東京大
學出版會 1970
- 24) 折口信夫「瀛琉球神道記」『沖繩文化論叢 2 民俗篇』P. 349 平凡社 1971
- 25) 伊藤幹治「奄美の神祭 - 加計呂麻島ノロ神事調査報告 -」『國學院大學 日本
文化研究所紀要』第3輯 p. 65 東京 1958
- 26) 小口偉一「ノロとユタ - 成巫過程についての若干の資料 -」『人類科學』Ⅱ

pp. 121~123 東京 1959

27) 小口偉一 1959 *ibid.* pp. 122~123

28) 小口偉一 1959 *ibid.* p. 123

29) 高木宏夫「ユタについて—沖中良部島の場合—」『人類科学』Ⅸ p. 191 東京 1957

30) 小口偉一 1959 *ibid.* p. 121

31) 高木宏夫 1957 *ibid.* p. 191

32) 鎌田久子「日本巫女史の一節」『成城大学 創立五十週年 記念 論文集』
p. 403 東京 成城大学